

면접! 취업의 최대관문으로 부상

면접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과거 얼마전까지만 해도 면접은 채용에 있어 별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필기시험이었고 면접은 필기시험후 가볍게 지나치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창의력과 이미지의 시대 / 더이상 면접은 만만하 여길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이나 학점, 학점 보다 면접을 우선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신문은 취업정보실에서 매년 '1996면접 가이드'를 토대로 면접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는다. <편집자>



▲ 기업 인사팀 면접시험 현장

일반적으로 말해 면접이란 서류심사,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응시자를 직접 만나 그의 인품, 언행, 지식정도를 알아보는 구술시험 또는 인물시험을 뜻한다. 이런 면접이 최근들어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종래 필기시험이 응시자의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데 그쳐 그사람의 성장가능성이나 조직응용력 등을 판단하기에 역부족인데 반해 면접은 응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최근들어서는 좀더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 그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의 면접동향

우선 회수와 시간이 크게 늘어났을 것을 들 수 있다. 면접이 중요시 되면서 두차례의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었으며 실무자 '면접이 강화된 것도 큰 변화다. 이런 분위기는 기성세대의 눈으로는 개성이 뚜렷한 신세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앞으로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입사후 같이 근무하게 될 실무사원들의 면접참여는 후배사원들의 실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면접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면접이 중요시 되면서 실무자 '면접이 강화된 것도 큰 변화다. 이런 분위기는 기성세대의 눈으로는 개성이 뚜렷한 신세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앞으로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입사후 같이 근무하게 될 실무사원들의 면접참여는 후배사원들의 실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드 인터뷰, 응시자10명이 한조를 이뤄 자기소개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을 순서대로 적어내는 동료평가 면접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뉘, 주된 면접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단독 면접. 한명의 면접관과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개인면접으로 면접관 여러명이 수험생 한사람을 불러놓고 질문하는 형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명의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사이 다른 면접관들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수험생은 전체 면접관에게 응답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 방법은 집단 면접이다. 이것은 시험관 여러명이 수험생 여러명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면접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집단토론식 면접이 있다. 집단 면접과는 달리 응시자끼리의 토론이 중심이 되는 이 방식에서는 면접관과 수험생이 둘러앉아 면접관이 내놓은 공통적인 화제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한다. 전체 속에서 개인의 리더십, 판단력, 설득력, 협동성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사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면접을 보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공통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접에서든 중요한 원칙은 있기 마련.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꼽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외모이다. 사실 건강상태, 용모 자태 명랑성 호감등은 외모가 주는 인상으로

좌우되기 쉽다. 여기서 깔끔한 옷차림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입사회망 회사직원의 옷차림을 모델로 삼는 것도 그중 한방법일 것이다.

두번째는 평가요소는 질의 응답이다. 면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이해력 표현력등이 주된 판단요소이다. 시중 침착하면서도 밝은표정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때는 또렷한 음성으로 자신있게 대답하되 지나치게 평가적인 언동이나 다변은 삼가는 것이 좋다. 긴장이 되다면 -습니다. -니다. 등의 어미를 분명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며 다소 느리게 말하는 것이 듣기에 편하다. 가능하면 면접관의 얼굴을 향하고 시선을 맞추어 자신있는 인상을 심어 줄 필요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질문요지를 분명

단순 능력평가에 그치는 필기시험 시대적 상황...창의력과 개성요구

하게 파악하는 것. 만약에 질문의 요지를 파악 할 수 없거나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때는 억지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정중히 부탁하거나 솔직하고 당당한 어조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는 응모서류에 의한 평가 요소가 있다. 이력서, 자기 소개서, 입사지원서등에 기입된 사항을 수험생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 데 별다르게 주의할 사항은 없지만 여기에서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 분명하고 자신감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올해 최대 채용가능 인원은 중소기업을 합해도 7만명. 그러나 대학문을 나설 사람은 자그마치 27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치열한 취업전쟁에서 살아 남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시대는 우리에게 능력과 개성을 겸비하라고 말한다. <정리: 최수정 기자>

세시봉

한승도 편집장

학교홍보 내실로부터

최근 각 대학마다 열풍처럼 유행하는 것이 있다.

이 열풍은 어찌나 거센지 대학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해 학내 문제화 되기도 하고 그 비난 만큼이나 광고효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대학관계자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주변에는 하루종일 청소년들로 붐비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노점상들은 경기가 안좋은 요즘에도 패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음악회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수천에서 수백으로 산정되는 이상 이 문제를 가히 쉽게 볼일 만이 아니다. 팬티엄급 컴퓨터로 환산하자면 1백대에서 2백대 규모로 학교 전산실을 만들 정도이고 장학금으로 차차면 수백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도서구입만으로도 1

만권이상이니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각 대학은 정부의 교육개혁박람회가 뭐다 하면서 내용없는 결매기로 그럴듯하게 꾸며가시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음악회를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비성의 행사가 대학의 걸 몇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나 당장 각 대학이 처한 교육환경개선문제에 있어서는 무어라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대학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은 음악회보다 큰 예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학생들은 적은 비용이라도 286컴퓨터를 팬티엄으로 바꾸길 원하고 장학금혜택을 폭넓게 받고 대학도서관에서 다양한 내용의 책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오히려 "우리학교는 음악회 유치비용으로 교육환경부문에 투자했다"고 홍보하는 것이 음악회로 인한 홍보보다 더 큰 효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학술단신

민교협, '연대사태로 본 언론의 문제점'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는 24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연대사태를 통해 본 언론의 문제점과 민주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교협은 연대사태 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다루는 여러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 언론의 보수성과 편향성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문제 의식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는 교수 중심으로 언론대학 특별 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대 신방과 유일상교수의

발제로 시작되는 본 토론회는 언론학 전공교수를 비롯, 법학 전공교수, 국회의원 민변 변호사, 기자협회등이 참석한다.

96 여성인력 활용전 23, 24 KOEX

미래사회의 유망 여성직종을 알리고 원활한 여성인력수급을 위한 96여성인력활용전이 여성신문사 주최로 오늘과 내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다. 기업체 전시와 유망직종 정보, 대학홍보 전시로 나뉘어지는 본 전시는 부대행사로 취업에 관한 세미나와 강연, 성공사례발표, 기업 설명회 등을 갖는다. 더불어 기업들에게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채용기회를 주기 위한 여성 인력뱅크를 설립 목적으로 취업원서접수도 병

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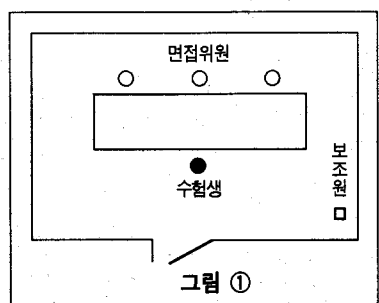
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 '갈등·분쟁해결강좌'

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시민운동 지원기금 지하교육장에서 '갈등과 분쟁 이렇게 해결합시다'강좌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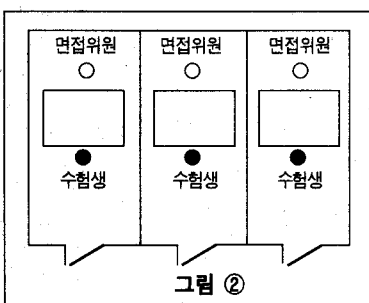
이 강좌에서 주로 다루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상일반론, 분쟁의 조정, 환경분쟁,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간 분쟁, 개별분쟁, 이익단체분쟁, 법정외의 분쟁해결 방법들과 그 제도에 대한 내용.

강사는 전 대한 알루미늄 대표였던 조상행씨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8주간 진행된다. 수강료 6만원(제일은행 325-20-26748) 예금주-안경주 ☎ 769-8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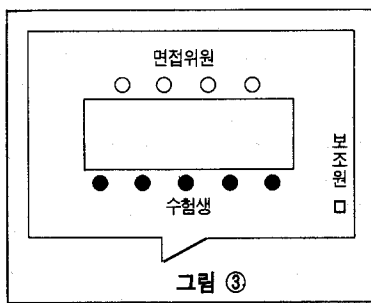
▼개인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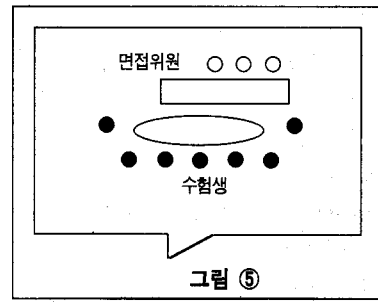
▼단독면접



▼집단면접



▼집단토론식면접



NO.3000671

사 직 서

성 명: 김 성훈
소 속: 경영혁신팀
직 위: 사원
입사년월일: 1996. 1. 1
퇴사년월일: 1996. 9. 1

상기 본인은 하기와 같은 사유로 서기 1996년 9월 1일자로 (사직 휴직, 복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저는 동국대라는 성원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노자는 저를 개방하고 저의 미래를 밝기위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몇 안되는 성원이었지만 이회사에서 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銀龜그룹

1996년 9월 1일

본인 김 성훈

아깝다, 좋은 인재!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벌써 그만두다니...

인재들의 능력을 120%개발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삼양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학교에서는 이룰 수 없는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양그룹은 인재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국내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이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해외연수등의 신입사원교육으로, 외국의 문화, 생활습관, 예술까지 몸에 익히는 Future Leader교육으로, 1년간 자유롭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해외 유수 대학의 MBA과정 교육으로, 선진경영기법, 신규사업, 국제금융에 대한 Global Manager교육으로 - 삼양그룹의 인재에 대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속의 초일류기업 - 삼양그룹은 이미 그 큰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 섬유부문: 원사에서 패션까지 수직계열화 추진
- 세계 5대 폴리에스터 메이커 진입 추진
- 화학부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첨단분자화학분야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 TPA생산능력 확대
- 환경·엔지니어링 부문: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환경사업 강화
- 플랜트 건설 사업의 중점 추진
- 건강산업 부문: 세계 최초로 항암제 제세미의 대량생산 성공
- 패러제형 개발 및 전문의약회사 설립 추진
- 정보통신 부문: 인터넷 구축, 공장자동화 사업, 화상회의 사업
- 국내 유선방송사업과 미국대 무선 CATV사업

삼양그룹

사업영역: 섬유, 식품, 사료, 화학, 기계, 엔지니어링, 의학, 정보통신, 금융, 연구개발, 해외사업, 육영